



食品工業의 發展과 變遷

徐英 (韓國經營研究所) 一

食品工業의 展開 過程

우리나라의 食品工業은 1820년대에 水産物 통조림 製造業이 최초로 企業化된 이래 製粉 製糖 釀造등의 農水産物 處理加工分野를 주축으로 企業化가 이루어지면서 展開되었다.

産業銀行의 조사 보고서중 食品工業이 發展해온 過程을 시대별로 구분하여 본다면 ① 第1期로서 6·25事變 이전까지의 期間과 ② 第2期로서 1950년부터 第1次經濟開發 5 個年計劃이 착수된 1962년 까지의 期間 그리고 ③ 第3期로서 1963년 이후 현재까지의 3段階로 나눌수 있는 데 다소간의 무리가 排除되지는 않지만 各段階마다 特徵인 發展相을 엿볼 수가 있다.

第1期 : 素材工業 1次 加工部門의 發芽 1950년 이전까지 食品工業의 工業化는 日本에 대한 食品供給을 위주로 하여 주로 日本人 資本에 의해 이루어졌다. 業種을 보면 低廉한 水産物을 原料로 한 통조림 米穀代替食品으로서의 製粉 그리고 製糖 釀造등의 정도여서 農水産原料를 處理 加工하는 것에 불과하였다. 당시의 主要食品工業의 設立 狀況을 대충 보면 製粉業이 1919년부터 近代化된 工場施設을 가지고 小麥粉 生産을 시작하였으며 1920년부터는 製糖工場이 1933년에는 麥酒工場이 각각 設立되어 稼動되었다.

이 당시 生産體制는 소수의 業種을 제외하고는 勞動集約인 상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고 技術水準 또한 유치한 段階였다. 食品工業에 대한 需要도 日本人의 것이 대부분이었고 一般需要는 극히 미약하였다. 따라서 近代인 食品工業을 위시하여 傳統的 食品工業이 生産活動을 영위하고 있었다고는 하나 食

品生産을 위한 工業生産이라기 보다는 生活必需品調達을 위한 일종의 自家生産의 性格을 더욱 짙게 나타내고 있었다.

第2期 : 洋風化와 加工食品 需要刺戟 몇몇 食品工業의 發芽를 제외하고는 手工業的 範疇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國內食品工業이 生産活動이나 製品面에서 近代化되기 시작한 것은 6·25事變이후 變革期를 맞으면서 歐美洋風이 출현한 때부터라고 할 수 있다. 聯合軍의 進駐와 함께 들어온 歐美의 生活樣式과 無償援助에 따른 外國製品의 流入은 우리나라 固有의 生活樣式에 展示效果를 불러 일으키게 하여 食生活 消費面에서 洋風化가 서서히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서 需要도 차츰 多樣化되었다. 이러한 結果는 직접 간접으로 米食中心의 食生活를 떠난 새로운 生活樣式에 대한 可能性을 보여 주게 된 한편 歐美風 食品에 대한 需要를 刺戟, 最終消費財 食品 工業部門이 發展할 수 있는 轉機를 마련케 해 주었다.

이러한 過程에서 食品工業은 製粉 製糖을 위시한 一次加工分野의 基盤이 확립되었으며 위 兩大素材工業의 原料를 需要하는 二次加工部門인 製菓 製醬 清涼飲料製造業등이 發芽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學皆의 製品生産은 資本과 施設의 零細, 生産技術의 미숙 그리고, 限定된 販賣市場등의 要因으로 말미암아 급격한 增大를 보이지는 못하였다.

第3期 : 食品工業의 發展과 分野擴大 第1次 經濟開發 5個年 計劃의 着手以來 經濟의 급속한 發展에 따른 國民生産水準의 向上과 함께 점차 食生活構造의 多樣化가 이루어졌고 다른 한편으로는 需要를 反映한 食品業界의 노력과 政府의 農漁村所得增大를 위한 諸般政策이 성공적으로 遂行되어 農畜水産物의 處理加工分野도 차츰 開發 擴大되었으며 食品工業

도 보다 向上된 製品을 供給하게 되었다. 특히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 高給化 多樣化된 國民食生活需要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先進技術을 도입하는 등 各部門에 걸쳐 막대한 投資가 이루어졌으며 또한 최근에는 企業體制面에서 大型綜合食品企業의 進出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結果 최근에는 햄·소세지 치즈 버터 乳製品등 營養價 있는 肉酪農製品, 검 비스켓 초코렛 커피 清涼飲料등을 비롯한 諸生活嗜好品, 구루타민소다 간장등의 調味食品 그리고 라면등의 便宜食品에 이르기까지 모든 製品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現代化된 施設에 의해 工業製品으로 生産되고 있다.

生産의 擴大와 産業上의 地位

國內食品工業의 生産擴大推移를 먼저 生産指數에 보면 1964년을 分岐點으로 그 이전까지는 需要低位와 生産基盤의 脆弱性을 반영하여 食品工業의 生産狀況은 매우 미약하였으며 經濟開發計劃이 본격화 된 1960년 대 중반이후 國民所得水準 向上을 배경으로 他製造業과 같이 급속한 成長趨勢를 지속, 현저한 生産擴大를 시현하였다.

그러나 근년에 이르러 他製造業과 비교하여 同工業의 生産擴大狀況은 상대적으로 鈍化現象을 빚어 全製造業의 平均成長水準을 下廻하고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 食品工業의 成長推移를 生産額面에서 보면 同工業의 生産額은 1970년 不變市場價格으로 1954년에 55,869백만원, 1962년에 115,842백만원, 1970년에 372,023백만원, 그리고 1974년에 568,130백만원에 달하여 伸張率은 1954/62년간, 1962/70년간, 1970

74년간에 각각 연평균 7.1% 15.8% 12.3%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食品工業의 産業上 地位는 附加價值를 기준으로 1955년에 全製造業의 35.0%의 比重을 점하여 여타부문인 纖維工業(20.7%) 化學工業(4.8%) 金屬工業(0.2%) 機械工業(5.4%) 등을 훨씬 능가하였으나 196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의 工業化政策이 消費財中心의 輸入代替産業에서 부터 基礎 基幹産業을 중심으로 이러한 부문에 중점적인 投資와 支援이 이루어져 重化學工業部門이 工業成長의 主導的部門으로 등장케 됨으로써 食品工業은 纖維工業과 함께 그 比重이 상대적으로 점차 약화되는 趨勢를 나타내고 있다. (표 1·參照).

1973년에 있어서 食品工業의 比重은 16.6%로 아직도 製造業 中 第1位를 점하고 있으나

(표·1) 食品工業의 産業上地位(附加價值基準)

(1970년도 不變價格, %)

	1955	1962	1970	1973
食 品	35.0	27.1	20.5	16.6
纖 維	20.7	18.1	14.7	15.2
化 學	4.8	8.5	18.9	16.5
金 屬	0.2	5.9	3.7	3.8
機 械	5.4	9.9	10	12.7
기 타	33.9	30.5	31.5	35.2
合 計	100.0	100.0	100.0	100.0

자료 : 韓國銀行刊 韓國의 國民所得(1973)

주 : 部門綜合은 1—0分析의 13個部門綜合方法에서 인용하였음.

1962년에 비하여는 10.5%나 低下되었으며 化學(1962년 對比 8.0%포인트 上昇) 機械(同 2.8%포인트) 工業部門의 上昇推移와는 정반대의 現狀에 있고 同期間中 纖維工業의 2.9%포인트 低下에 비하면 그 振幅이 비교적 큰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國內食品工業의

成長推移는 근년에 이르러 다소 鈍化되고 있지만 食品工業이 인간의 食生活에 직결되고 인구의 伸張이 거의 일정하여 급격한 食料消費의 增加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고려한다면 매우 괄목할 만한 伸張이었으며 日本 및 先進諸國의 그것에 비해서도 현저한 水準이었다.

또한 食品工業의 地位를 國際比較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國內 食品工業의 産業上比重은 아직도 先進 諸國에 상당히 높은 水準에 있다.

(표 2) 産業構造의 國際比較

(단위 : %)

	韓 國 (1973)	日 本 (1973)	自由中國 (1969)	美 國 (1967)
食 品	22.0	11.3	21.6	16.7
纖 維	23.1	8.5	17.5	7.6
其他輕工業	16.6	17.6	16.9	15.6
化 學 工 業	18.2	11.6	19.7	14.4
金 屬 工 業	9.0	20.1	7.8	16.4
機 械 工 業	12.1	30.9	16.5	30.3
合 計	100.0	100.0	100.0	100.0

자료 : 韓國銀行

주 : 生産額基準

食品工業은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同工業 내부의 個別 업종은 성장의 양태와 전개과정을 달리하고 있으며 각 업종이 갖고있는 문제점 역시 상이함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個別業種이 갖고있는 공통점을 요약하면 원료조달문제, 기업체제문제 및 국내수요기반확충 문제라고 볼수있다.

금후에도 국민식생활 향상에 힘입어 식품공업은 착실히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만큼 다양화 되고있는 식품 수요에 부응하고 양질 풍부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식품공업계는 능동적인 제반 능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